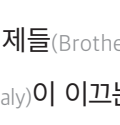


이탈리아 ITALY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총리 정부 출범과 여성정책 전망

박서희 에라스무스 로테르담 대학(Erasmus University Rotterdam) 국제사회과학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of Social Studies) 객원연구원

2022년 10월, 이탈리아에서는 사상 첫 여성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출범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극우정당 ‘이탈리아의 형제들(Brothers of Italy)’ 대표인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다. 이탈리아의 형제들(Brothers of Italy)이 이끄는 우파연합이 조기총선에서 승리하면서, 무솔리니가 취임했던 1922년 이후 100년 만에 이탈리아에서 극우정당 출신 총리가 취임하게 되었다. 이탈리아에서 공화정 정부가 들어선 이래 여성 정치인이 진출한 가장 높은 직급은 외교부 장관, 상원의장이었다.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총리인 만큼, 멜로니 총리는 과연 여성 및 양성평등 추진 정책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고 있는지, 정치 및 사회 일각에서 바라보는 전망은 어떠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멜로니 총리는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자녀를 키우고 있는 미혼 워킹맘이다. 그리고 본인이 겪은 성 고장관념, 전자기반 온라인 협박이나 괴롭힘 등의 문제점을 공식 석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 하지만 멜로니 총리가 오늘날 이탈리아 여성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관심을 갖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리라는 보장이 전혀 없다는 비판적인 관점도 있고, 여성인권 개선 여부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총선 유세 기간 동안 멜로니는 본인이 권력을 가진 남성들에게 맞서는 강인한 여성이자 이탈리아에서 정당을 이끄는 유일한 여성임을 강조해왔다. 반면 본인을 여성주의자(feminist)라고 묘사하지는 않았으며, 기업 내 의사결정적 여성할당제(pink quota)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성별이 아니라 개인 역량으로 그 자리에 올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리고 멜로니 총리는 공식석상에서 본인은 (전통적인) 가족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발언하였고, 임신중지와 성소수자(LGBTQ+) 사회운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멜로니측이 추진한 주요 공약 중 하나는 출산율 증대인데, 이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자국민 여성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반면, 이민자 여성들이 자녀를 낳는다면 이탈리아의 인종 구성비율이 변하게 될 것이라고 고집한다.

특히 멜로니가 속한 정당인 이탈리아의 형제들(Fratelli d'Italia)은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하거나 수술할 수 있는 임신 주수를 축소해왔다. 멜로니는 임신중지를 금지하지는 않았으나 여성들에게 임신중지 말고 다른 옵션도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예를 들어 임신중지를 포기하고 아이를 낳기로 결심한 여성에게는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임신중지가 합법이고 공립병원에서는 무료로 임신중지 수술을 받을 수 있으나, 의료진이 개인의 판단이나 신념에 따라 임신중지 수술이나 약물 처방을 거부할 양심적 거부 권리가 보장된다.

유로뉴스(Euronews)는 이탈리아 내에서도 지역별 정당 기반에 따라 임신중지 서비스 접근성에 격차가 크다는 점을 보도한 바 있다. 보수 정당이 우세한 지역에서는 대부분의 산부인과 의사들이 임신중지 약 처방 및 수술을 거부해서 현실적으로 여성들이 시의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멜로니가 총리로 지명될 가능성이 커지자, 9월 말 이탈리아 주요 도시 곳곳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멜로니와 이탈리아의 형제들을 향해 기존의 임신중지법을 개정하지 말 것, 그리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 이탈리아 기자는 영국 온라인 매체 오픈 데모크라시(Open Democracy)와의 인터뷰에서 멜로니 총리는 선거에서 이기려고 본인이 여성이라는 점을 내세웠는데, 여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여성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오픈 데모크라시(Open Democracy)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한 정치철학자는 멜로니 총리는 대체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성 고정관념을 기반으로 발언해 왔고, 백인, 이탈리아 자국민이라는 특정 사회집단에 중점을 두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멜로니 총리는 여성은 여성다워야 하고, 여성은 본래 엄마가 되는 것이 순리라고 여긴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멜로니가 앞으로 여성은 재생산, 육아 부분을 맡는다는 성역할을 고착화하는 정책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멜로니의 정책 공약 노선을 토대로 미루어보건대 새 내각이 여성의 인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영국 일간지 더 가디언(The Guardian)에 따르면, 중도진보 성향의 민주당(Democratic Party) 소속인 한 의원은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정부 하에 이탈리아 여성 인권은 일부 후퇴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리고 이탈리아 여성 유명인사들도 멜로니 총리의 가족계획 정책, ‘전통적인’ 가족 관념을 중시하는 태도, 소수인종 여성의 권리 무시 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한 여성 가수는 멜로니의 공약은 이성애자이면서 가톨릭교회에 추구하는 이미지에 부합하는 여성을 강조하고, 성 소수자 및 소수인종 여성을 배제하고 있다는 글을 게시했다. 또 다른 한 유명가수 역시 본인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멜로니 총리 측이 내세운 공약들은 전형적인 기존 가족의 이미지와 성 정체성을 고수하는 정책 공약들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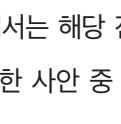
이 밖에도 이탈리아에서는 여성 대상 폭력이 여성 관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왔다. 2021년 8월부터 2022년 7월 일 년여 간 여성 대상 살해(femicide) 사건은 125건에 이르렀으며, 수치를 환산하면 3월에 한 명 이상 꼴로 살해당한 셈이다. 가해자는 대부분 자국민이었는데, 멜로니가 속한 정당은 외국인인 저지른 여성대상 살해 사건들만 공문화 시키고 주의를 끄는 데 활용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멜로니 총리가 이끄는 이탈리아 정부는 2022년 10월 22일 출범했다. 이탈리아 사상 첫 여성 총리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그 여성 총리가 과연 양성평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지, 여성 관련 사회 현안들을 어떻게 다루어 나갈지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AP News (2022.9.28) "Italians march for abortion rights after Meloni victory" <https://apnews.com/article/abortion-elections-marriage-italy-808172ad84f4f3d35feef3645633bd06> (접속일: 2022.11.23.)
- Euronews (2022.9.28) "Italy election: Activists raise alarm over abortion rights after Meloni's win", <https://www.euronews.com/2022/09/27/italian-activists-raise-alarm-over-abortion-rights-after-meloni-win> (접속일: 2022.11.23.)
- Open Democracy (2022.9.26) "The anti-women agenda of the woman set to be the next Italian prime minister", <https://www.opendemocracy.net/en/5050/giorgia-meloni-far-right-brothers-of-italy-election-prime-minister-racism-gender/> (접속일: 2022.11.23.)
- Politico (2022.9.2) "Will Italy's first female prime minister be bad for women?", <https://www.politico.eu/article/italy-first-woman-prime-minister-giorgia-meloni-mario-draghi-brothers-abortion-feminist-levante-chiara-ferragni-elodie/> (접속일: 2022.11.23.)
- The Guardian (2022.9.29) "Italy's Giorgia Meloni denies she is anti-women as credentials questioned",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2/sep/29/giorgia-meloni-italian-women-abortion-pink-quotas> (접속일: 2022.11.23.)

영국 UNITED KINGDOM



영국 보건사회복지부의 여성건강전략 발표 (2)

원다혜 런던영대의학위생대학 국제보건/보건정책학 박사과정

영국의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수십년간 해결되지 않은 성별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2년 8월에 “영국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을 발표했다. 이번 호에서는 해당 전략을 발표하기 전에 실시한 수요조사와 설문조사를 통해 영국정부가 집중하기로 한 사안 중 일부와 이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여성건강에 대한 정보와 인식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여성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인식이 부족하여, 여성들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을 실시하기에 앞서 진행된 수요조사(이하, 여성건강전략 수요조사)에서 여성건강관련 양질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수요조사와 공공설문조사의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과 친구에게서 여성건강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가 무려 74%이며, 그 다음으로 구글(Google)이 71%, 기타 서치엔진이나 블로그가 69%로 많았다. 보건의료전문가 또는 주치의가 59%,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가 54%로 다른 요소들에 비해 응답자들의 의존도가 낮았다. 여러 기관에서 모집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사회적 편견과 금기(taboo)가 건강 관련 정보 접근성의 장벽으로 여성과 여아들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블로그나 소셜 미디어처럼 쉽게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 여성건강관련 정보 접근성을 향상하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영국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 for England)의 향후 10년간의 적용방식은 크게 디지털 역량강화와 교육으로 나뉜다. 공공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에서 여성건강 관련 정보를 구하는 응답자가 적다. 따라서,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는 디지털 역량강화에 집중하여, 쉽고 간편하게 양질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유튜브(YouTube) 같은 온라인 플랫폼과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 여성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편견과 금기를 깨기 위해 영국정부는 성과 재생산 권리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부터 ‘관계, 성관계, 그리고 보건 교육(Relationships, Sex, and Health Education: RSHE)’을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의무교육으로 포함시켰다. 해당 교육은 남녀 모두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제공하여, 여성건강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는 환경과 이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한, 2024년에 발행될 예정인 평가보고서 결과에 따라 교사들이 여성건강 관련 내용을 교육할 때 자신감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며, 보충자료에 성폭력, 불법촬영과 배포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여성건강과 성재생산성의 관련 정보 접근성의 장벽을 해소하고자 한다.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폭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 가정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은 신체와 정신건강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바,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에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폭력이 중요한 주제이다. 앞서 진행된 대중설문조사에서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폭력이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에 포함되길 희망하는 주제 중에서 8위 (30%)를 기록했다. 16-29세 연령집단과 다민족집단 응답자들에게는 해당 주제가 5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설문 참여자의 9%만 성폭력/희롱 연계센터나 여성할례(Female Genital Mutilation) 센터와 같은 폭력 피해자지원센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은 장애 여성이 피해에 여성보다, 성소수자 여성이 이성애자 여성보다 가정폭력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폭력의 피해 집단을 세분화해야함을 강조한다. 또한, 영국정부는 여성과 여아들의 가정폭력 피해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트라우마 센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발표했다.

- 영국정부는 무관용(zero-tolerance) 법칙을 자국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폭력관련 정책에 반영한다. 정책은 크게 피해자에 대한 지지와 중독물질 오남용에 따른 폭력, 그리고 양육자 갈등으로 세분화된다. 피해자를 지지하기 위해 해당 전략은 건강과 폭력관련 기관들이 모인 집중케어시스템(Integrated Care Systems)을 통해 잠재적 폭력 가해자를 색출하고 피해자를 지지하는 방안을 강화하고자 한다. 가정/성폭력이 여성과 여아들의 자살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단위의 폭력 피해자에 집중한 보건의료 전문가 팀을 만들고자 한다. 그리고 트라우마 기반 접근(Trauma-informed Practice)의 정의를 확립 및 실현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성과 여아들이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건의료 종사자들이 인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해당 전략을 통해 공표하였다.

- 중독물질 오남용이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 내무부(Home Office)차원에서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을 통해 중독물질 오남용으로 인한 폭력 예방책에 개입하였다. 이는 영국정부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표한 의존증 양육자의 자녀들을 위해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and Pensions)에서 재정적 지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서 나아가, 알코올 의존증과 같은 약물 오남용이 폭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인식하여 이를 해체하고,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려는 노력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양육자의 갈등이 자녀 또는 양육 아동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해당 전략은 갈등 기반 폭력에 대해서도 다룬다. 부모나 양육자의 갈등으로 인한 폭력이 세대에 걸쳐 여성과 여아들에 대한 가정폭력과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 기반 폭력부터 다루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건강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은 여성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정부는 이에 대한 국가적인 노력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다. 하지만, 모든 전략을 계획한대로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미국 UNITED STATES



미국, 여성 수감자의 의료보호

김춘혜 세인트조즈 대학교 (Saint Joseph's University) 조교수

미국의 대량 수감(mass incarceration) 현상은 현재 심각한 사회문제중의 하나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약 200만명의 사람들이 주와 연방 감옥, 그리고 지역 교도소 등에 수감되어 있다(Prison Policy Initiative, 2022). 지난 40년 동안 수감자의 수가 500% 증가하였고 미국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을 수감하고 있다. 2021년 5월 기준, 미국은 100,000 명당 639명이 감옥 혹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이는 100,000 명당 562 명이 수감되어 있는 엘살바도르(El Salvador)와 100,000 명당 330 명이 수감되어 있는 러시아보다 훨씬 높은 숫자이다(Statistics, 2022). 대부분의 수감자는 남성이지만 여성 수감자의 수도 적지 않다. 모든 수감자중의 10%정도가 여성 수감자이고 여성 수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매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여성 수감자의 증가 추세는 남성 수감자의 증가 추세보다 훨씬 빠르다. 이 추세로 진행한다면 곧 여성 수감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훨씬 높아질 것이다. 대부분의 여성수감자는 약물 사범이거나 혹은 재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80%의 여성 수감자가 자녀를 둔 ‘엄마’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약 3%~4%의 여성 수감자가 수감당시 임신을 한 상태인 것으로 보고되었다(Prison Policy Initiative, 2022).

약 3~4% 정도의 여성이 수감될 당시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 대부분이 감옥 및 교도소에 있는 동안 제대로 된 ‘임산부 건강보호 정책’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고 한다. 미국 내 대부분의 교도소가 헌법에 의해 출산 전의 건강보호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방정부에서 여성에게 필요한 케어에 대한 제대로 된 기준을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주의 교정 시스템(감옥 및 교도소와 같은)의 임산부 케어를 위한 프로토콜이 부족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주에서 수감된 여성들에게 출산 전 의료적 케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그 중 12개의 주에는 수감된 여성들의 건강한 임신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 미국 사법통계청의 2004년 설문에 의하면 54%의 임신부만이 감옥에서 출산 전 의료 케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수감된 임신부의 경우 일반 임신부에 비해 건강한 출산을 방해할 위험요소(예: 약물 중독, 성병)가 더 많이 존재하고 그 위험요소가 수감으로 인해 더 심각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2개의 주에서는 ‘고위험군’임산부에 대한 특별 케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Prison Policy Initiative, 2019). 이를 반영하듯 수감된 여성들의 유산율은 19~22%정도로 일반 여성들에 비해 훨씬 높은 편이다. 또한 조산율도 일반 여성들에 비해 1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Prison Policy Initiative, 2021). 이는 감옥 및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여성, 특히 임신부의 기본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수감된 여성의 임신중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감된 사람들을 위한 생식 건강 증진 옹호 및 연구 프로그램’(the advocacy and research on reproductive wellness of incarcerated people)의 디렉터인 캐롤린 서프린(Carolyn Sufirin)의 연구에 의하면 2016년과 2017년 사이 12개월 동안 22개주의 감옥과 6개의 지방정부 교도소를 확인한 결과 19개 주만이 수감되어 있는 임신부의 임신중절을 허용했으며 그중 3분의 2는 임신중절 비용을 임신부 본인이 부담하게 하였다. 수감되어 있는 여성들에게 임신중절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많은 여성 수감자들이 보석금을 내지 못해서 수감되어 있는 경우를 감안하면, 이 제도가 그녀들의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을 얼마나 떨어지게 하는지 예측가능하다.

하지만 이제 로 대 웨이드(Roe v. Wade)가 뒤집어지고 각각의 주(States)마다 임신중절 관련 법을 제정하면서, 여성 수감자에게 임신중절을 허용했던 주에서도 수감된 여성들의 임신중절에 대한 접근성은 훨씬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는 주에 거주하는 일반 여성에게도 해당하지만, 수감된 여성들의 경우 일반 여성에 비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이유는 임신중절이 가능한 주로 이동해 임신중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많은 주가 임신중절을 금지하면서 그 주의 감옥 및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의 임신중절도 금지되었다(Young, 2022). 이에 따라 앞으로 교도시설에 거주하는 임신부 여성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미 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임신한 여성들에 대한 관리는 빈약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더 많은 여성 수감자들의 제대로 된 의료 관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며 이는 그녀들 및 그 자녀들의 건강에도 큰 문제를 끼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옥 및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임신부를 위한 건강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케어에 대한 기준을 확실하게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페널티도 따라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Prison Policy Initiatives (2019.12.5) "Prisons neglect pregnant women in their healthcare policies". <https://www.prisonpolicy.org/blog/2019/12/05/pregnancy/> (접속일: 2022.11.2)
- Prison Policy Initiatives (2022.5.4) "Unsupportive environments and limited policies: Pregnancy, postpartum, and birth during incarceration" <https://www.prisonpolicy.org/blog/2021/08/19/pregnancy-studies/> (접속일: 2022.11.2)
- Prison Policy Initiatives (2022.3.14) "Mass incarceration: The whole pie 2022". <https://www.prisonpolicy.org/reports/pie2022.html> (접속일: 2022.10.27)
- Prison Policy Initiatives (2022.5.4) "Prisons and jails will separate millions of mothers from their children in 2022."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oct/21/us-abortion-bans-insurmountable-barriers-incarcerated-women> (접속일: 2022.11.2)
- Statista (2022.8.5) "Incarceration rates in selected countries."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262962/countries-with-the-most-prisoners-per-100-000-inhabitants/> (접속일: 2022.10.27)
- Young, M. (2022.10.21) "Abortion bans create 'insurmountable barriers' for incarcerated women in US" <https://www.theguardian.com/us-news/2022/oct/21/us-abortion-bans-insurmountable-barriers-incarcerated-women> (접속일: 2022.11.2)